

■ 광주 온 야권 대권주자 김두관 경남지사 인터뷰

“민주, 지지계층 더 넓혀야 집권 가능”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광주시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위해 14일 광주시청을 방문했다. 김지사는 특강에 앞서 광주지역 기자들을 만나 6월 말까지 지역민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대선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하지만,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가 싶다. 일차적으로 당에서 잘 수습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 수습했으면 한다.

-서울 등 수도권 행보가 잦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 아닌가.
▲광역단체장은 중앙부처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래서 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서울을 자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부도 민들은 단체장이 중앙부처 예산을 잘 확보하라며 격려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서울에서 정치 활동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7월초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는 설이 있다. 대선 출마 선언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가.

▲일부 언론에서 오는 7월1일 대선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6월 말까지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발언이 그렇게 전달된

내달까지 국민 의견 수렴

대선 출마여부 최종 결정

것이다. 오는 6월19일까지 경남지역 시·군 차체 단체 순방 일정이 잡혀있어 도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겠다. 우선 저를 지사로 뽑아준 도민들이 양해를 해 줘야하고, 국민이 '김두관이 필요하다'고 해야한다. 광주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6월 말까지 충분히 고민한 뒤 결정하겠다.

-최근 문재인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안철수 교수와의 공동정부'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한 견해는.

▲원칙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민주세력이 더 의견을 넓혔으면 한다.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지적은 있지만, 문재인 전 이사장도 대선을 승리해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대원칙에서 얘기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대선 뿐 아니라 이후 국정운영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공동 정부 논의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세력을 아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는 진영논리다. 진영 논리에서 51대49로 갈 수 있지만, 선거 이후에는 보다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부가 양극화나 한반도 문제 등을 풀어나갈 수 있다. 따라서 의견을 폭넓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향후 야권연대에 대한 견해는.

▲진보당 상황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정당 내부 문제가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 목적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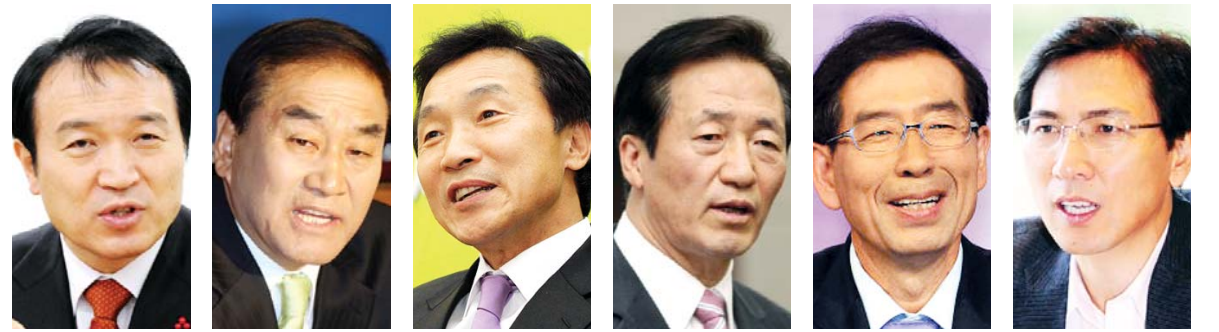
5·18 민주화, 6·10항쟁 정신

개헌 때 헌법 전문 포함돼야

다.

-호남과의 어떤 인연이 있다.
▲광주와 전남은 1년에 4~5차례 방문하는 것 같다. 지역운동과 농민운동을 하면서 호남과 많은 인연을 맺었다. 19대 총선 경기 군포 지역구 이학영 당선자와는 오랜 인연이 있다. 이 당선자가 순천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을 당시 남해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저와 인연이 돈독했다. 이후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호남 지역민들과 인연을 많이 넓혀왔다.
오늘 오전에 5·18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하고 왔다. 최근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개헌이 된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항쟁 정신이 새로운 헌법 전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치인들 '5월 광주'속으로

임태희 15일, 이재오·손학규 17일 방문

안희정 16일·박원순 17일 조선대 특강

5·18 광주민주화운동 32주년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광주행'이 잇따르고 있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둔 탓에 지역 민심을 가능하려는 대선 주자뿐 아니라 유력 정치인들의 발길이 잦아지는 등 '5월 광주'가 대선 정국을 맞아 뜨거워지고 있다.

친노 진영의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14일 강릉시 광주시장과의 교차특강을 위해 광주를 찾았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김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고(故) 노무현 대통령 3주기를 앞두고 열린 '무등산 노무현 길' 등반대회에 참석차 광주를 방문하고 국립 5·18 묘지를 찾아 헌화·분

향했다.
또 다른 야권의 대권 주자인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오는 17일 전남대 특강을 위해 광주를 찾는다. 손 상임고문은 전남대 특강 이후 각종 5월 행사 등에 참여해 대선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오 의원도 광주에서 첫 대권 행보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17일부터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49박50일 간의 2차 민생투어에 나선다.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도 15일과 16일 광주와 목포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할 계획이다.

대선 후보 첫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했던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도

17일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호남 민심 다지기를 할 예정이다.

대권 주자뿐 아니라 유력 정치인들의 광주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14일 오전 국립 5·18 묘지를 찾아 1시간여 동안 머물며 곳곳을 살폈다. 15일 오전에는 이인영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5월 영령을 찾아 넋을 기린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조선대학교 특강을 위해 광주를 찾는다. 박 시장은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초청으로 오는 17일 오후 5시 서석홀 4층 대강당에서 강연을 한다. 이날 박 시장은 '원순씨, 청춘에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대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안 지사는 정치외교학부 초청으로 16일 오전 10시 사회과학대학 6층 연주홀에서 '21세기의 진보와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들은 강연 이전 또는 이후에 국립 5·18 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희호 여사

광주·여수 방문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 15일과 16일 광주와 여수 엑스포를 방문한다.

이 이사장은 15일 오후 광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5월 영령의 넋을 기린 뒤 16일 오전 10시 열리는 '2012년 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광주 '세계인권도시 포럼'에는 국내 인권단체와 NGO, 독일 뉘른베르크 등 해외 인권도시 대표와 UN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와 대표들이 참석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 오늘 전대... 황우여 당대표 유력

당원·청년선거인단 투표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5·15 전당대회의 절차가 13일 시작되면서 대의원·당원의 표심을 흡수하기 위한 전대주자들의 막판 경쟁이 정점으로 치달고 있다.

새누리당은 15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1만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대주자 9명의 정경 발표를 듣고 투표를 실시한다.

선출방식은 1인 2표제 방식으로 대의원·당원·청년 선거인단이 투표한 결과(70%)와 여론조사 결과 (30%)를 합산한다. 득표율 1위는 당 대표로, 2~5위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다.
황우여 의원이 지난 1년간 원내대표로서 보여준 세심 의지와 5선이라는 경륜을 바탕으로 당대표에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 여성 뉘오로 지도부 입성이 확실한 재선의 이혜훈 의원도 만만치 않은 추격세를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른 주자들은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당심을 파고들고 있다. 부산시장 위원장인 3선의 유기준 의원은 당 기반인 영남권의 유일 주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을 집중 공략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李대통령 미안마 전격 방문

수치여사 회동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테인 세인 미안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안마의 수도 네피도를 국민 방문했다.

지난 1983년 10월9일 북한이 저지른 '아웅산 테러' 참사 이후 한국 대통령이 미안마를 방문한 것은 29년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

담과 국민만찬에 잇따라 참석한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최근 양국관계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경제·통상 분야 협력 강화, 개발경험 공유, 에너지·자원개발 협력, 문화·인적교류 증진 등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미안마의 민주화를 이끈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회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지도자의 딸이자 독재자의 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4일 한라산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독재자의 딸'로 불렀던 것과 관련, “기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산업화에 기여한 지도자의 딸이자 인권탄압과 장기집권을 기도한 독재자의 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산업화에 기여한 지도자로 보는

견해에선 지도자의 딸로 평가되지만 유신 이후 인권탄압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독재자의 딸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과거에도 이렇게 발언했는데 앞 부분은 빼고 뒷부분만 기사화했던 것”이라며 논란을 해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대권도전과 함께 내세운 분권형 개헌 정책을 거듭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고구마산업 1조원시대, 무안황토고구마가 이끌어 갑니다.

전국 고구마농업의 최고를 자랑하는 무안 고구마 생산 농민들의 힘으로 무안고구마사업단이 농수산식품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고구마산업 1조원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무안고구마사업단은 다양한 기반시설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고구마생산농가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더욱 건강하고 맛있는 고구마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자 노력합니다.

고구마는 21C를 대표하는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고구마로 이름을 떨치던 무안고구마의 그 명성 그대로, 뛰어난 품질의 맛있는 고구마로 소비자 여러분들께 다가서겠습니다.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487번지 전화 061)454-7445

-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클러스터사업단 선정 · 2008~2010 농식품부 사업단 종합평가 최우수사업단 선정 · 토글토글 고구마요리교실 운영 · 사단법인 토글토글여성아카데미 출범
- 소비자초청체험행사 개최 · 친환경 유기농포럼 결성 · 명품 고구마생산을 위한 재배 매뉴얼 출판 · 고구마 재배기술과 병충해 예방 교육 · 동아시아 고구마 국제 워크숍 개최